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을 향한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의 부활절 서신**

**주교 각하들과, 공경 받아 마땅하신 신부님들과, 존엄하신 수사수녀님들과,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온후하신 하느님의 자비로 빛나는 부활절 밤에 도달하였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기뻐합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이 위대한 축일이자 축제 중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금 기념되는 사건과 우리 사이에는 거의 이천 년의 시간적 격차가 자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년 변하지 않고 전율하는 영을 지닌 채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부단히 예루살렘의 오래된 성벽 인근 동굴 무덤에서 벌어진 특출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의 기적적인 육화(肉化)에서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까지 그분이 걸어가신 지상생애의 전 여정은 언젠가 창조주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손수 “우리의 병고를 메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이사야 53:4),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마태오 1:21)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러 차례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선택 받은 민족이 계약에서 어긋나 조물주의 뜻을 어겼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이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바, 이는 생명의 참된 원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버린 인간이 처한 경계 끝인 죽음이 마침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적 죽음은 존재하고 인간의 몸을 죽게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죽일 능력, 즉 우리에게서 창조주와의 친교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삶을 빼앗을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전복되어 그 독침이 잘려 나갔습니다. (1 코린토 15:55) 주님께서는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에페소 4:8) 저승을 내리 누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루카 1:37)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습니다!”(마태오 28:6)

금년 지구의 사람들은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우리 나라들의 국경에

도달하였습니다. 당국은 전염병의 폭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 방침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총대교구가 사목적 책임을 지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성찬예배를 포함한 공적 예배들의 거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잡한 여건들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고, 더욱이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의 속량을 위한 고난 직전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부활절은 인류에게 있어서 죄에 사로 잡힌 노예상태에서 천국의 자유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로마 8:21)가 그것입니다. 오직 구세주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만세에 칭송 받는 바오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 서있으십시오”(갈라티아 5:1)하고 우리에게 호소하며 증언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몇 번이나 읽고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혀 없었던 듯 마냥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일순간 열린 영원한 부(富)를 끝 없는 염려와 맞바꿔가며, 다시 이 세상의 허무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공포에 빠져 부패하지 않는 영적 보화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의롭게 그분을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명을 잊고 있지 않는지? (루카 1:75)

그러나 복음에서 우리에게 착한 목자의 예로 제시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야고보 1:27)은 서로서로 사랑과 인내로 굽어 살피고, 시험에서 서로서로 돕고 지원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외적 제약도 우리의 일치를 깨뜨릴 수 없고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1 요한 3:1) 가능성을 주신 그분을 우리 모두가 앞으로서 획득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는 “한 마음 한 영혼”(행전 4:32)이 있는 바, 이는 우리 구성원들은 개별적이나 함께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구성하며, 아무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로마 8:39) 그러므로 오늘 타당한 이유로 성당에 와서 기도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것을 알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살아내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위험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하여 우리 삶에 스며든 재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병고와 시험들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은혜로운 예배생활의 공동참여자로 남을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성체성혈성사가 거행되고, 충실한 이들이 생명의 진정한 원천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사들에 결연하게 다가가며, 병자들은 치유를 얻고, 건강한 이들은 위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공동 기도를 강화하실 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서고 지상에서의 여정이 구세주의 발현으로 영생에 이르게 할 굳셈과 용기를 내려 주실 것을 믿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께 찬란한 성 부활절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구세주의 진정한 제자들의 본보기를 부단히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분의”(1 베드로 2:9) 온전함을 선포하여, 우리가 우리 전생애에 걸쳐 이 부활절 인사말의 스러지지 않는 위력과 영원함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2020 년 그리스도 부활절